

한라포커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어떻게 (중) 항공기-조류 충돌

“치명적 손실 가능성 희박” 분석

국토부 ‘최소 398년에 1건 발생’ 제시 논란 환경연구원 “충돌 예방 근본적 해결책 미흡”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가 논란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례 의견으로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제시했다. 항공기-조류 충돌은 약 99%가 공항을 중심으로 13km(비행고도 약 2000피트 이하)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비행고도 2000피트 이하에서 75.3%(776건 중 584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국내 RCHL값을 적용한 결과 조류 충돌 가능성(TR)은 ‘제로’로 나타났고, 영국의 RCHL값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 가능성(TR)은 0.00074~0.00251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

도수는 최소 398년에 1건으로 분석됐다.

또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 현지 조사에서 발견된 159종 가운데 고위험으로 평가된 종은 꿩, 백로류, 청둥오리, 기러기류, 깍도요, 독수리, 물수리, 흰뺨검둥오리 등 총 9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공비행 안전확보대책으로 조류충돌 정보 공유사이트 운영, 버그패트를 설치, 초지관리를 제시했고 조류서식지 보호대책으로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제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국립연구기관인 환경연구원은 “다시 제출된 본 평가서에도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전 노력과 항공비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방안이 독립적으로 수립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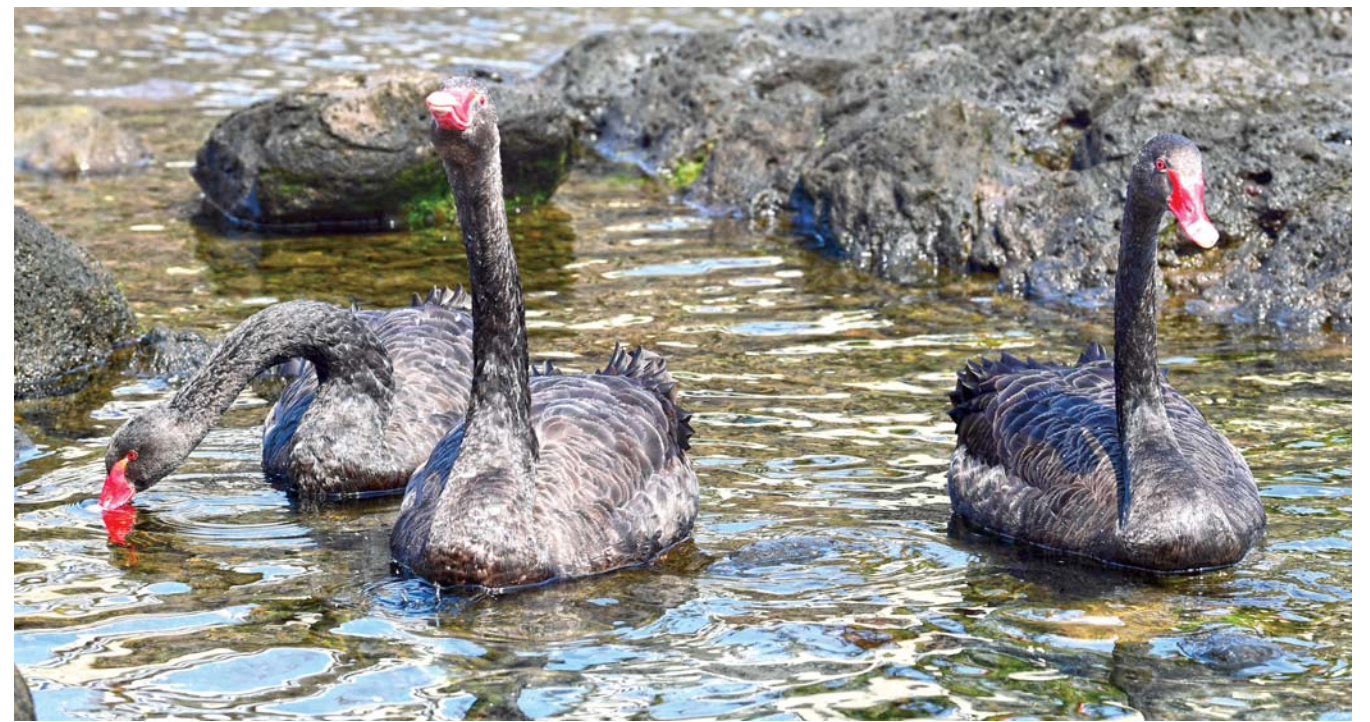
이에 환경부는 제2공항 계획지구와 인접한 해안은 저어새, 큰 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도래하는 지

역이므로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류 개체군에 대한 계절별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 및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조류의 이상적인 자유분포 모델에 따른 유사 선호 공간 서식 공간 이동 예측의 한계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사업 시행 전·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로지자



먹이 찾는 ‘검은고니’ 8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에 검은고니 3마리가 찾아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검은고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철새가 아니며 동물원이나 동물 사육시설에서 탈출한 개체로 보인다. 강희만기자

도내 IB학교 12곳 맞춤형 지원 강화된다

도교육청 조직 개편 통해 전담팀 운영…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제주도교육청에 IB(국제 바칼로레아)팀이 생겼다. 고교 IB DP 과정에 참여해 올해 처음 대입을 치르는 표선고 3학년 학생에 대한 입시 전형 지원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 IB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맞춰 국제교육협력과를 국제교육과로 개편하고 ‘국제학교·IB팀’을 신설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운영했던 IB학교를 국제교육과에서 독자적인 팀을 꾸려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사 등 모두 4명의 인원을 배치했다.

현재 제주지역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초·중·고 12교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된 IB 관심학교(가마

초, 성산초, 시흥초, 한마음초)에는 탐구수업 기반 구축 등 후보 학교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한다. IB 후보학교(제주북초, 온평초, 풍천초, 성산중)에는 월드스쿨 인증 요건 마련을 돕는다. 또한 IB 월드스쿨(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에는 수업·평가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 IB DP 학교인 표선고에 첫 대입을 앞두고 있어서 대학 입학사정관과 입학관계자 대상 홍보 활동, 진로진학과 상담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IB 창의봉사활동(CAS) 시스템, IB DP 외부 평가 응시료, 산학 겸임 강사, 교사 숙소 임차비 등 IB DP 교육활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IB DP 성과와 진학 결과 분석을 통해 IB DP 이수 학생의 대학 진학 연계를 위한 IB DP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B DP 성과 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IB 교원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IB 교사 자격증 과정, IB 공식 워크숍 참가 지원, 현장 요청형 연수, IB 교원 기본 역량 강화 직무 연수, 국제학교 수업 참관 연수 등이 그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개념 기반 수업 모형 개발 IB PYP 운영 학교 6교, 서·논술형 평가 기반 수업 설계 IB DP 운영 학교 1교 등 연구학교를 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IB 학교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벌일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제주,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 선정

5년간 2145억 투입해 청정바이오 분야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지자체와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산업 등 지역의 핵심분야 산업과 연계, 교육체계를 개편해 협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예비선정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7일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향후 5년간 2145억원(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서비스를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도는 제주테크노파크에 총괄운영센터를 두고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불법소각기 운용 선박 적발

불법소각기를 설치해 운용한 선박이 적발됐다.

8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산항에서 선미갑판에 불법 소각기를 설치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차례 소각한 A호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점검강화에 따른 해양오염예방 출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불법소각설비를 설치·운용한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이스타, 3년 만에 제주~김포 운항 재개

26일부터 하루 10~12회 왕복

이스타항공이 제주~김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경영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3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이후 3년 만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은 데 이어 노선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제주~김포 노선을 재운항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3대가 제주~김포 노선에 모두 투입되며 이달 26일 오전 6시50분 김포공항 출발편을 시작으로 하루 10~12회 왕복 운항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계시즌(3~10월) 일정을 공개하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당 축 선

CONGRATULATIONS

고 봉 주

제주시농업협동조합장

제주시농협 제16대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골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고 혁 수 외 임직원 일동